

해외 바이오 · 제약기업 ESG 대응 현황

- 미국 상장 50개 바이오기업 조사결과 대부분 ESG 도입 초기 단계 -
- Amgen, Merck 등 일부 다국적제약사 녹색채권 발행 등을 통해 ESG 목표 달성 움직임 -
- 국내 일부 제약기업 ESG 경영 시작, 업계 전반적으로 ESG에 대한 대비 필요 -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

◇ 미국 법무법인(Fenwick) 자료에 따르면 미국 상장 바이오기업 ESG 공개 대부분 시행 초기단계¹

- 미국 상장 바이오기업 중 시총 13억 달러 46억 달러 사이 50개 기업에 대해 증권거래소 및 기업 웹사이트 자료를 통해 조사한 결과 70%는 ESG에 대한 공개자료 없음.
- 기업경영진 및 투자자 100명 대상 설문조사결과, 향후 1년 이내 ESG의 중요도가 더 높아질 것이란 응답이 92%, 중요성에 변화가 없을 것이란 응답은 8%에 불과
 - 기업경영자들 대상으로 ESG 공개에 대한 변화 여부를 조사한 결과, 74%는 ESG 공개가 강화 될 것으로, 26%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 응답하였으며, 줄어들 것이라 응답한 사람은 없었음.
 - 투자자 대상으로 바이오기업 투자 결정에 있어 ESG가 중요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수요자로부터의 압박 증가, ESG 공개가 하나의 표준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많았음.
- 바이오기업들은 ESG 중에서 S(사회적책임)*에 대한 자료 추적조사 및 조사계획이 많은 것으로 조사됨. E(친환경)는 천연자원, G(지배구조)는 데이터보안·CP 관련내용을 많이 고려 중
 - * 인간의 권리, 다양성·형평성·포용, 임상시험안전성, 환자안전성, 신약접근성, 제품안전성, 직원안전 등

◇ 해외 다국적제약사들, 투자자 및 소비자 요구증가로 사회적책임(S)에 더해 의약품 생산에 따른 환경 영향 최소화(E)를 위해서도 다양한 시행 수립 및 투자

- 다수 제약사들이 10년 이내 탄소중립 및 폐수배출 개선, 폐기물 저감 등을 주요이슈로 언급²
- 최근에는 지속가능성 및 친환경 경영을 위한 녹색 채권 발행 추세
 - ① 미국 Amgen, ESG 프레임 워크의 일부인 E(친환경) 목표 추진을 위해 녹색채권 발행
 - '22년 2월 발행된 녹색채권은 약 7억 5천만 달러의 규모이며 녹색건물, 친환경 운영 및 제품 범주 프로젝트에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금액을 할당할 계획³
 - Amgen은 '07년부터 환경중심 프로젝트를 구현하였고 '27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제시⁴
 - ② 미국 Merck, ESG 목표달성을 촉진하기 위해 지속가능성 채권 최초 발행⁵
 - 우선순위 ESG 분야*에서 프로젝트와 파트너십을 지원하고 유엔 지속가능성 개발 발전에 기여
 - * 의약품 및 백신, 감염성 질병연구 및 개발, 신재생에너지 발전, 에너지 효율 저감, 친환경 건물, 지속가능한 물 및 폐수 관리 등을 포함
 - ③ 이스라엘 Teva, 기후 및 의약품 접근과 관련된 지속가능성 연계 채권 발행⁶
 - 온실가스(GHG) 배출량을 25% 줄이고 저소득 및 중위 소득 국가(LMIC)의 환자를 위한 필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150% 증가시키기 위해 가장 큰 규모의 50억 달러 채권 발행
 - ④ 스위스 Novartis, 의약품 접근성을 개선하고 건강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가능성 연계 채권 책정⁷
 - ESG 일환으로 저소득 국가에서 의료 불평등을 해소하고 전체 공급망에 걸친 탄소중립을 목표

〈녹색채권(Green bond) 개요^{8,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채권은 채권발행을 통해 조달한 금액의 사용목적은 대체에너지, 기후변화 대응 등 친환경 산업 지원에 한정시키는 채권으로 발행기관도 국제기구에서 민간으로 다변화 추세 ♣ 녹색채권은 민간자금 유인을 통해 기후변화에 보다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인 금융수단이며, 투자자는 녹색채권에 투자함으로써 ESG를 고려한 사회적책임투자를 이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table border="1"> <caption>Green Bond Issuance (USD Billions)</caption> <thead> <tr> <th>Year</th> <th>Green (USD Billions)</th> <th>Forecast (USD Billions)</th> </tr> </thead> <tbody> <tr><td>2016</td><td>~50</td><td></td></tr> <tr><td>2017</td><td>~100</td><td></td></tr> <tr><td>2018</td><td>~120</td><td></td></tr> <tr><td>2019</td><td>~200</td><td></td></tr> <tr><td>2020</td><td>~250</td><td></td></tr> <tr><td>2021</td><td>~300</td><td></td></tr> <tr><td>2022</td><td>~650</td><td></td></tr> <tr><td>2023</td><td>~950</td><td></td></tr> </tbody> </table> <p>© Climate Bonds Initiative, 2021</p>	Year	Green (USD Billions)	Forecast (USD Billions)	2016	~50		2017	~100		2018	~120		2019	~200		2020	~250		2021	~300		2022	~650		2023	~950	
Year	Green (USD Billions)	Forecast (USD Billions)																										
2016	~50																											
2017	~100																											
2018	~120																											
2019	~200																											
2020	~250																											
2021	~300																											
2022	~650																											
2023	~9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년 녹색채권 발행량은 '20년 2,944억달러를 넘어 약 5,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23년에는 1조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 																												

◇ 국내 바이오-제약업계, ESG 경영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대비해야

- 국내 제약산업의 ESG 시도는 복잡한 평가기준, 전문인력 부족, 비용부담 등의 이유로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21년 제약바이오기업의 ESG 평가 A등급 업체는 10곳으로 증가하였으나 상위제약사 위주로 ESG 경영을 도입하고 있는 상황¹⁰⁾.
- ESG 경영방침을 공개한 국내 제약사들 대부분 또한 사회적책임(S)에 집중하고 있고, 친환경 분야(E) 평가는 타산업 대비 취약한 부분으로 나타나 친환경 요소를 반영한 경영전략 마련에 대한 고민이 필요

〈참고자료〉

1. Biotech's ESG Crossroads, FENWICK, Feb. 2022
2. 국내외 제약바이오기업의 ESG 대응 현황 및 시사점, KDB 산업은행, 2022
3. Endpointnews, 2022, Pharma sustainability: Amgen debuts \$750M 'green bond', Merck initiates ESG goal review
4. Investing news, 2022, AMGEN ISSUES INAUGURAL GREEN BOND TO ADVANCE ESG GOALS
5. Merck, 2021, Merck Issues \$1 Billion Inaugural Sustainability Bond
6. Teva, 2021, Teva Becomes First Pharmaceutical Company to Execute Sustainability-linked Bond Tied to both Climate and Access to Medicine Targets
7. S&P Global, 2020, Novartis prices €1.85B sustainability-linked bond to support ESG initiatives
8. Climate Bond Initiative, 2021, Annual trillion in green bonds within reach by 2023
9.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7
10.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ESG 평가 및 등급조회